

선한 사마리아인

-여덟 번째 이야기-



48Page

나 레 이 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어요.
율 법 학 자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?
예 수 님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?
율 법 학 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,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.
예 수 님 너의 말이 맞다. 그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.
나 레 이 션 그러자 율법학자는 자신을 높여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.
율 법 학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?
나 레 이 션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.



49Page

예 수 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.
강 도 1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 써야지~ 고맙게 잘 쓰겠네~
남 자 안돼요! 제발 돌려주세요!!
강 도 2 이거 말로 해선 안되겠구만!!!! 퍽퍽!!
남 자 으악! 억! 우웁! 꼬억! 흐어억!
예 수 님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지.



50Page

예 수 님 그 사람은 많이 다쳐서 일어날 수가 없었던단다. 그 때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. 그 발자국 소리의 주인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지.
남 자 (생각) 제사장이 지나간다. 나는 이제 살았어!!
으음... 살려 주세요! 헉.. 헉.. 제발 도와주세요!
예 수 님 쓰러진 사람은 지나가는 제사장을 보고 간절히 애원했어. 하지만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 못 본체하며 반대쪽으로 지나갔다.



51Page

예 수 님 잠시 후, 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.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레위사람이었다.
남 자 (생각) 으음.. 레위인이라면 날 도와줄거야... 도와주세요, 제발.. 저를 살려..
예 수 님 레위 사람도 쓰러져 있는 남자를 보았지만 못 본체하고 반대쪽으로 지나갔다.



52Page

예 수 님 쓰러져 있는 남자는 점점 힘이 빠졌어. 그런데 조금 있으니 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단다. 나귀를 타고 온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.

남 자 (생각) 제사장과 레위 사람도 그냥 갔으니 사마리아 사람은 당연히 그냥 가겠지. 점점 힘이 빠진다.. 난 결국 이렇게 길에서 죽게 되겠군...

예 수 님 쓰러진 남자는 기운이 빠져서 거의 포기를 했단다.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.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에서 내려 강도 당한 남자에게 다가간거야.

사마리아인 저런! 피를 많이 흘렸군요. 이 부근에는 강도가 많아서 정말 조심해야 해요.

예 수 님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 주었어. 또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에 약을 발라 주고 잘 싸매 주었단다.

예 수 님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을 나귀에 태워 주막집으로 가서 같이 하루를 보내며 보살펴주었다. 다음날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말했다.

사마리아인 제가 지금 가봐요 합니다. 부디 다친 사람을 잘 돌봐 주세요. 제가 다시 돌아올 것 입니다. 돈이 더 들면 그 때 갚겠습니다.

나 레 이 셴 예수님은 긴 이야기를 마치고, 질문했던 사람에게 물었어요.

예 수 님 자, 이야기에 나온 세 사람이 있다. 제사장, 레위인, 사마리아인.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겠느냐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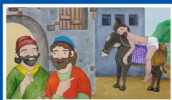
율 법 학 자 다친 사람을 도와주었던 착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.

예 수 님 그래, 맞다. 너도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!

나 레 이 셴 예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은 큰 감동을 받고 돌아갔답니다.



53Page



54Page